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 2길 6번지

이 대통령, 27일 전북에 온다

타운홀 미팅 열고 '미래산업 기회의 땅' 육성 위한 정책 방향 도민들과 공유
농생명·재생에너지 등 토대 선순환 발전 모델,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 제시

전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전북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이 오는 27일 개최된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북을 '미래산업 기회의 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참여형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팅의 핵심 메시지는 전북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북'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점이다.

드박스 조성과 RE100 산업단지 지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도에서는 최근 문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은 문화·역사·관광의 보고이자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씨앗을 품은 곳"이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생명 바이오와 재생에너지 등 지역 강점을 토대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청년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지컬 AI와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을 집중해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구체적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전북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대규모 재정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떤 균형발전 구상과 지원책을 제시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각계각층에서 지원한 도민 가운데 균형 있게 선발된 200명이 참여해 지역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자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다. 설 연휴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민생 문제와 지역 발전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는 한편 변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지역 여론에 미칠 파장이 크게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행정통합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사 장소와 정확한 시간은 경호상 이유로 추후 공개되며, 참여 신청은 대통령 페이스북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23일 정오까지 진행되고 있다. 선정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전북의 주요 현안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문제는 주민 갈등과 정부 지원 체계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 요구가 크다. 또한 새 민금 개발과 공항 건설 문제, 메가 센

트와 함께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농촌마을 모델과 주민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개발계획과 관광객 실태조사,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 관광의 중장기 비전을 정립하고,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제2국가원전 건립, 미식관광 활성화 등 전략 사업을 통해 전북을 국내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청년·농업인·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폭넓은 참여를 고려해 선

정된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현대 선수들이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에서 트로피를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북연구원, 올해 '10대 연구 아젠다' 선정·발표

피지컬AI·RE100 대전환 선도모델 정립·확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민선 8기 도정 비전 실현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발표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민경제 △농생명산업 △문화·체육·관광 △균형발전 △도민행복 등 5대 분야를 정책적 틀로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10대 연구 아젠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젠다는 전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도정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과제들이다.

성과 함께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농촌마을 모델과 주민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개발계획과 관광객 실태조사,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전북 관광의 중장기 비전을 정립하고,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제2국가원전 건립, 미식관광 활성화 등 전략 사업을 통해 전북을 국내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연구 아젠다는 △피지컬AI·RE100 대전환의 선도모델 정립과 확산 △전북 성장엔진 고도화로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 △전북경제 자생력 강

화를 위한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새관제기와 국내 거점화 △지역 특화형 정주인구 역동성 회복 △생활인구 유입·정주화 제도 고도화 △지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 △전북형 돌봄기본사회 기반 조성 △지역 주도 기후·생태·환경 정책도달 선도로 구성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정주·생활인구 확대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돌봄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성년후견제도 사회적 서비스 체계 고도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를 고도화한다. /이만호 기자

신 생태계 강화 △전북경제 자생력 강

전라·호남선 40% 이상 증편 '가능성 有'

민주 이원택 의원, 김윤덕 국토부장관에 건의... '긍정' 화답 이끌어
도민 교통불편 해소·삶의 질 향상·형평성 차원 문제 해결 전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전라·호남선 고속열차 운행 40% 이상 증편



이원택 의원



김윤덕 국토부장관

요구가 현실화되면 영호남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도민들의 기본권 회복과 함께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 이뤄져 철도를

선 고속열차 편성을 현행보다 각각 4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소형우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대형 위주로 조정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과 관련,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긍정적인 화답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 여부에

도민들의 귀와 눈이 쏠리고 있다.

이용한 물동량을 비롯 전북발전

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씨(전주시 덕진구 이후동)는 "이원택 의원의 호남·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증편요구사항을 언론을 통해 들었으며 사실 수십년동안 전북이 교통소의 지역으로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때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100% 반영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거니와 이 의원의 주장이 현실

로 나타날 경우 그동안 교통 소외로

도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함께 불편

이 말끔히 사라지고 삶의 질 향상은

정읍시 소성면 출신의 배동희씨는 "정읍지역은 호남선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이나 기타 지역을 상경하거나

물론 형평성 차원 문제로 대거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좌석수 역시 주말 기준

경부선이 하루 17만7,000석인데

비해 호남선은 6만8,000여석으로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

다.

이밖에도 열차 편성에서도 경부선

900석이 넘어선 대형 고속열차가

투입된 반면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선

에는 400석 인력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차간격 역시 경부선 10분 내외인데 비해 호남선은 20분 안팎으로 뚜렷한 격차가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난 11일 이 의원이 전북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주장한 내용으로 40% 이상 증편

따라서 이 의원은 호남선과 전라

선 고속열차 편성을 현행보다 각각 4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소형우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대형 위주로 조정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부안군 BUAN-GUN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동봉이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금액	세액공제+담례품
100,000원	130,000원
200,000원	204,000원
1,0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2,436,000원
20,000,000원	9,411,000원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담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QR코드: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 1 지정기부
아생범
분봉이를
지킵니다
- 2 어른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